

보도자료

2012년 9월 7일(금)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 (☎750-2430), bjj@kcc.go.kr
지상파방송정책과 김성환 사무관 (☎750-2434), openkey@kcc.go.kr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적 운용 허용

지상파 TV 개국 이후 50여년만에 방송시간 규제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월 7일(금)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허용*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 : 현행 19시간(06:00~익일01:00) ⇒ 24시간(00:00~24:00)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심야방송(01:00~06:00)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별도 승인없이 24시간 범위 안에서 방송사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시작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는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1967년 아침방송 실시(06:30~09:00), 1996년 아침방송 확대(06:00~12:00), 2005년 낮방송 확대(12:00~16:00) 허용 등으로 방송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심야방송시간의 재방송 · 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권고사항〉

- ①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 ②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용할 것
- ③ 시청자 혼란 방지를 위해 방송시간의 확대 및 축소 등 방송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것
- ④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성 있는 편성정책 개발 및 참신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허가 반영 등을 통해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방송운용시간 확대 이후 지상파방송사는 인력운영, 제작여건 및 광고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심야시간대 주요 편성은 KBS는 클래식 음악·스포츠·다큐멘터리, MBC는 시사보도·문화예술·지역사 프로그램, SBS는 보도·다큐멘터리·스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방송3사 방송시간 확대 계획(안)〉

방송사	주요 내용
KBS	·1TV : 10월 이후 24시간 방송, 2TV : 11월 이후 21시간 방송
MBC	·10월 이후 21시간 방송
SBS	·12월 이전 21시간 방송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이 확보되고, 지상파 방송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